

국민계정 작업반회의 참가결과 보고

2006. 10.

경제통계국 통계분석과

차 례

I. 출장개요

II. OECD 국민계정 작업반회의

1. 회의개요
2. 회의일정 및 주제

III. 회의 주요내용

1. 국민계정체계(SNA) 재검토(개정) 진행상황
2. 국민계정 자원(resource) 조사결과 보고
3. 연금기금의 계정처리 방안
4. 금융법인기업과 금융자산의 분류
5. 연구개발(R&D) 지출의 자본화
6. 국민계정 연간 및 분기자료의 OECD 제공
7. 연쇄가중법에 의한 GDP 성장기여도 작성
8. 기타
9. 향후 작업추진 계획

IV. 회의참가 소감

I. 출장개요

1. 출 장 자 : 통계청 통계분석과 박순찬 사무관

2. 출장목적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민계정 작업반회의 참가
3. 출장기간 : 2006. 10. 9 ~ 10. 13
4. 출장지역 : 프랑스 파리 소재 OECD 본부

II. OECD 국민계정 작업반회의

1. 회의개요

- 회의목적 : 국민계정과 관련된 개념, 통계자료 및 추계방법 등에 대한 권고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논의
- 회의주관 : OECD 경제통계국 국민계정과
의장 : Mr. Francois Lequiller (국민계정과 과장)
- 회의기간 : 2004. 10.10. ~ 10.12
- 회의장소 : OECD 본부 회의실
- 참가자 : OECD, Eurostat, IMF, UNSD 및 각 국가 대표
한국 : 통계청 통계분석과 박순찬 사무관,
한국은행 OECD한국대표부 윤면식 주재관,
한국은행 국민소득팀 최덕재 차장

2. 회의일정 및 주제

2004. 10. 10. (화)

1) SNA 리뷰

- SNA 개정작업 소개와 개정된 ISIC의 국민계정 적용

- 연금기금의 처리방안
- 리스와 라이선스
- 금융법인기업과 금융자산의 분류

□ **2004. 10. 11. (수)**

1) 신 SNA의 이행

- 연구개발(R&D) 지출의 자본화
- 미국, 이스라엘의 연구개발지출의 위성계정 작성(1차) 결과
- 비시장산출물의 측정

2) 국민계정 추계방법

- 노르웨이의 공급사용표의 균형(balancing) 방안
- 이탈리아의 국민계정과 공급사용표
- 일본의 민간비영리단체 위성계정 작성사례
- 호주의 새로운 근로시간 추계방법

3) 국민계정 작성기관의 자원

- 국민계정 작성기관의 자원과 조직에 관한 통계조사
- 사용자를 위한 국민계정 훈련 경험
- 학생을 위한 OECD 국민계정 매뉴얼

□ **2004. 10. 12. (목)**

1) OECD 토론

- 국민계정 연간자료와 메타데이터의 OECD 제공
- 국민계정 분기자료의 OECD 제공
- 새로운 OECD 정책 보급
- 국민계정 분기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갱신
- 성장기여도의 계산

2) 오픈세션

- 호주의 ICT위성계정 작성사례
- 중국의 신국민계정
- 향후일정 토의

Ⅲ. 회의 주요내용

1. 국민계정체계(SNA) 재검토(개정) 진행상황

□ 생산기술의 혁신 가속화, 서비스산업의 발전 등 세계경제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통계의 국제비교성과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UN 등 국제기구는 2008년 3월 완료를 목표로 「국민계정체계」(93 SNA) 개정작업을 추진중

— 국민계정체계 개정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ISWGNA*(Inter-Secretariat Working Group on National Accounts)는 2006년 제4차 전문가 자문단(AEG; Advisory Expert Group)에서 개정작업시 고려되어야 할 44가지의 검토과제가 포함된 잠정보고서를 채택하고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

* UN, IMF, World Bank, OECD, Eurostat 등 5개 국제기구로 구성

—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2007년 3월까지 주요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2007년말 SNA 개정초안 작성, 2008년 3월 개정안 확정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

□ 한편 회원국의 새로운 국민계정체계(SNA 93 Rev.1) 도입시기는 2006년 3월 UN 통계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개정 국제표준산업분류(ISIC)를 언제까지 자국의 산업분류체계에 반영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임

— 호주(2009년), 캐나다(2010년), 미국(2012~13) 등이 상당히 빠른 시기에 개정 국민계정체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이며, EU 국가는 2013~14년, 우리나라와 일본은 각각 2014년과 2015년경으로 예상

2. 국민계정 자원(resource) 조사결과 보고

□ OECD 통계국은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민계정에 종사하는 자원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잠정보고서로 작성하여 이번 회의에서 발표

— 이번 조사는 회원국간 국민계정 자원실태를 비교할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사안의 중요성과 일부 회원국의 요청을 감안하여 “room document” 형식으로만 그 결과를 회원국 대표에 배포

※ 회의 개최일 현재 회원국중 오스트리아, 그리스, 뉴질랜드, 포르투갈, 터키, 영국, 미국 등 7개국은 조사표 미제출

□ 조사결과 보고서는 크게 국민계정 인력, 국민계정통계 작성범위, 분야별 인력, 계량모형에 의한 필요인력과 실제인력의 차이 등 크게 네 개 부분으로 구성

(국민계정인력)

—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인력은 총 90명으로 23개 회원국중 7번째로 많음(Full Time 기준)

— 캐나다가 162명으로 가장 많고 아이슬란드가 가장 작은 10.9명

—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당 국민계정 종사자 수는 1.9명으로 23개국중 17위에 해당되며 아이슬란드(37.3명)와 일본(0.4명)이 최고와 최저

(국민계정통계 작성범위)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1개 회원국이 조사대상 23개 핵심(CORE) 통계표를 모두 작성하고 있으며, 멕시코(11개), 아이슬란드(12개),

스위스(16개), 일본(17개) 등이 상대적으로 작음

- 국민계정 절대 인력이 적은 나라들일수록 작성하는 통계가 작게 나타남

(분야별 인력)

-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부문(5명) 중하위, 기업부문(2명) 하위, 금융계정(9명) 중상위를 차지

(계량모델로 추정된 필요인력과 실제인력)

- 인구 100만명당 국민계정 인력을 oecd가 자체 개발한 계량모형 (GLOBAL MODEL)으로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필요인력보다 실제인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번 조사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일반정부계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 계정에 투입되는 인력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
- 한편 OECD는 조사결과의 이용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
 - 국민계정 작성에 소요되는 인력은 국가(경제)의 규모에 따라 달라짐
 - 회원국간에 국민계정 세부 통계작성 범위가 동일하지 않음
 - 통계작성 과정에 있어서 복잡성(complexity)의 정도가 회원국마다 다름

3. 연금기금의 계정처리 방안

- OECD는 연금제도(pension schemes)의 계정처리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이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요청

- 정부가 직접적인 지급책임이 없는 모든 고용주 연금제도는 기금형 또는 비기금형에 관계없이 중심계정(core accounts)에 기록
 - 정부가 보증하는 비기금형 연금제도는 부속계정(supplementary accounts)에 기록하되 각국의 사정에 따라 중심계정에도 기록
 - 정부가 보증하는 기금형 연금제도는 중심계정에 기록
 - 개정 SNA에서는 모든 연금제도의 지급내역과 잔액을 기록하는 새로운 부속계정을 도입하고, 동 계정에는 중심계정 뿐만 아니라 가계의 연금수급도 기록
- 개정 SNA에 연금기금의 처리방안이 반영되어야 하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연금종류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되어 향후 계속 논의 예정

4. 금융법인기업과 금융자산의 분류

- 금융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통화·금융정책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금융법인기업과 금융자산의 분류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

(금융법인기업)

93 SNA(현행)	개정 SNA (안)
중앙은행	통화금융기관
기타예금취급기관	중앙은행
예금통화기관	상업통화금융중개기관
기 타	(MMF 포함)
기타금융중개기관	기타금융기업
금융보조기관	투자기금(MMF 제외)
보험회사와 연금기금	기타금융기관(중개, 보조, 기타)

	보험사 및 연금기금 보험사 연금기금
--	---------------------------

(금융자산)

93 SNA(현행)	개정 SNA (안)
통화성 금과 SDR	통화성 금과 SDR 통화성 금 SDR
통화와 예금 통화 이전가능예금 기타예금	통화와 예금 통화 이전가능예금 기타예금
주식제외 기타증권	부채성증권 단기 장기
대출 단기 장기	대출 단기 장기
주식과 출자지분	주식과 투자기금지분 주식 시가평가주식 비시가평가주식 기타주식 투자기금지분 MMF지분 기타투자기금지분
보험지급준비금 가계순지분 생명보험가계순지분 연금기금가계순지분 선급보험료 및 미지급보험금	보험, 연금, 지급보증준비금 비생명보험준비금 생명보험준비금 연금기금가계순지분 지급보증준비금
파생금융상품	파생금융상품과 종업원 스톡옵션 파생금융상품 옵션 선도계약 종업원 스톡옵션
기타 상거래신용 무역신용 및 선급금 기타	기타 상거래신용 무역신용 및 선급금 기타

	각주사항 : 해외직접투자 주식 대출 기타
--	---------------------------------

- 상기 분류체계에 대해 금융산업(상품) 하위 분류체계의 포괄범위, 금융과 비금융간의 경계식별, 용어선택 등에 있어 실무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음

☞ 이 문제는 내년도 회의에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결론

5. 연구개발(R&D) 지출의 자본화

- 현행 93 SNA에서는 연구개발(R&D) 지출을 고정자본형성이 아닌 중간투입(소비)으로 처리

— 93 SNA 작성 당시에도 연구개발 지출을 고정투자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음

- 최근 들어 연구개발 지출이 신제품 개발,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 등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민계정 전문가그룹인 AEG는 “연구개발지출의 고정자본형성 반영”을 44개 의제의 하나로 선정

— 큰 방향에는 이견이 없으나 SNA에서 자산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소유권’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즉, 대가없이 공개되어 사회의 공유물이 되는 연구성과와 관련된 R&D가 논란의 대상

- 덴마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AEG의 권고안에 찬성의사를 표시 하였으나 OECD에서는 동 의제가 상당히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Canberra II/NESTI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될 계획임을 공지

6. 국민계정 연간 및 분기자료의 OECD 제공

- OECD는 매분기 및 연간 기준의 국민계정 추계결과와 메타데이터 등을 제출받아 이를 국가간 경제현황 분석 및 비교에 활용함과 동시에 전세계 이용자에게 간행물, CD-ROM, OLISnet 등으로 제공
 - 추계결과의 제출시점과 통계의 제공범위, 일부 통계의 추계방법 등이 회원국마다 차이가 나고 추계방법 변경, 중요 메타데이터 등을 통보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국민계정통계의 효율적 활용이 저해
 - 특히 FISIM 등의 처리방식 변경으로 시계열에 단절이 발생할 경우 신·구 계열을 별도로 구분하거나 신·구 계열을 외삽법 등으로 연결한 시계열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
- 또한 OECD는 통계표의 재분류 및 통합작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table 1400(산업별 및 상품별 고정자산)과 table 2000(산업별 및 상품별 교차분류에 의한 고정자산)을 한 표로 통합하고, table 2200(산업별 및 상품별 교차분류에 의한 상세 총고정자본형성)을 보다 세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이와 관련하여 table 2000과 table 2200의 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
- 한편 분기 국민계정통계(QNA)의 OECD 제출에 있어 연쇄가중법 도입을 강조하면서 프랑스, 한국, 멕시코, 터키 등 4개국의 연쇄가중법 도입을 촉구

7. 연쇄가중법에 의한 GDP 성장기여도 작성

- 현재 대부분의 회원국이 연쇄가중법의 분기 및 연간 GDP를 추계하

고, 이에 기초하여 성장률과 재고변동의 성장기여도 등을 산출

— 재고증감과 순수출의 경우 고정가증법에 의해 성장기여도를 계산할 경우 경제현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 경기변동 분석시 잘못된 의사결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 OECD는 회원국이 상기 두 지표의 성장기여도를 가법성(additive) 하에 가급적 연쇄가중법으로 작성할 것을 권고

8. 기타

□ 이 밖에 다수의 회원국들이 각 분야별 GDP 또는 부속계정 등의 편제경험을 발표

— 미국, 이스라엘은 연구개발지출의 위성계정 작성(1차) 결과를,

— 노르웨이는 공급사용표의 균형(balancing) 방안을,

— 일본은 민간비영리단체(NPISH) 위성계정 편제결과를,

— 호주는 ICT 위성계정 작성 사례를,

— 중국은 자국의 국민계정 작성방법과 최근 실시된 경제센서스 결과를 반영한 수정내역을 각각 발표

9. 향후 작업추진 계획

□ 2007년 3월에 AEG 모임

- 새로운 국민계정체계(안)의 세밀한 검토
- 일반정부계정을 개정 SNA에 반영

□ 실행 이슈

- 비시장산출물 측정 핸드북 발간
- 지적재산권 측정 핸드북 발간
- OECD 자본스톡 매뉴얼의 업데이터

□ 차기 회의 주요 의제(2007.10.9~10.11)

- 개정 SNA 최종 점검
- R&D와 무형자산(intangible)에 대한 논의
- 비시장산출물 측정 방안
- 국민계정조직과 교육
- 연금기금의 위성계정/부속계정 반영 방안
-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의 주요 정보
- 재고변동의 측정 개선방안

IV. 회의참가 소감

- 이번 OECD 국민계정 작업반 회의는 2008년 3월 UN통계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93SNA 체계의 수정판(Rev 1.) 내용중 전문가 그룹에서 연구 검토된 내용에 대하여 각 국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였음
 - 우리나라는 국민계정 통계의 공식 작성기관인 한국은행에서 개정안에 대하여 대부분 동의하였다는 의견이었음

- 또한 매우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각 국이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시험적으로 추계한 내용들에 대하여 발표하는 자리를 가짐으로서 국민계정 작성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연금기금의 계정처리, 리스와 라이선스의 포괄범위 등

- 향후 통계청에서도 국민계정 작성의 기초가 되는 기초통계의 측정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거나, 국제적인 기준 마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음